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 탐색 -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과의 비교 중심으로 - Exploring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In Comparison with the Music Curriculum in British Columbia, Canada

김승연* · 소경희**

Seungyeon Kim · Kyunghye So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해,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을 탐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와 자료를 음악과 교과역량 및 핵심역량과의 관계, 내용체계 구조, 내용체계 제시방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용체계 설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음악 교과 본질에 기반한 음악과 교과역량 설정 및 교과역량 중심의 핵심역량 연계, 교과역량 중심의 내용체계 구조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체계 설계, 내용체계 각 구성요소의 위계 제시, 학습의 과정적·절차적 측면에 대한 내용 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역량기반 교육과정,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과역량, 핵심역량, 내용체계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the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the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improve the way of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establishing music subject competency based on the essence of the music subject and connecting core competencies with a focus on subject competencies, structuralizing the content system with a focus on subject competencies, designing the content system for instructors to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in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presenting a hierarchy of each component of the content system, and presenting contents about the process and procedural aspects of learning.

Key words: competency-based curriculum, music curriculum, music subject competency, core competency, content system

* First author, E-mail: sinsia32@snu.ac.kr

Teacher, Gyesan girls' Middle School, 16, Jangje-ro 755beon-gil, Gyeyang-gu, Inche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hee@snu.ac.kr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I. 서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 위주의 전통적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혁신적인 대안으로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혁신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역량기반의 새로운 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역량’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을 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기대했던 학교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Park et al., 2019; Lim et al., 2017; Choi et al., 2017; Choi, 2018).

그러나 흥미롭게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과별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 실태의 모니터링 결과(Bae et al., 2019)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과에서 교사들은 핵심역량 및 교과역량을 이해하고 있고, 수업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사들의 응답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않다는 앞의 지적과는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를 자신들의 기존 경험이나 실천에 기반하여 걸러냄으로써 표면상으로만 새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Berglqvist & Berglqvist, 2017). 이는 교사들의 인지 수준이 새로운 교육과정에 ‘동화’는 하나 ‘조절’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절에 필요한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개혁 메시지는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어렵다(So et al., 2020). 앞서 언급한 모니터링 결과는, 교사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한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동화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교사들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당초 의도한 바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담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혁 메시지에 대해, 자신들의 기존 틀을 변화시키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존 경험이나 실천에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로 교육과정 문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실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것이 새롭게 추구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개혁 메시지를 문서에 명확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Lim & Hong, 2016; Chung, 2016; Lee et al., 2017; Lee & Jeung, 2017; Lee, 2019b; So, 2020). 이들 지적은 특히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교과역량의 설정 및

내용체계의 적합성과 관련된 것으로 첫째, 교과역량이 총론의 핵심역량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설정됨으로써 교과역량의 특수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교과역량과 내용체계 간의 관련성이 문서상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내용지식을 강조하는 교과에 더 적합한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중심의 내용체계의 틀을 모든 교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 넷째, 교과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기능’이 지나치게 수행 위주로 제시되어 역량을 기능적 측면으로 축소시켜 이해하게 했다는 점 등이다.

역량기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문제점도 교과역량 설정 및 내용체계의 구조를 위주로 제기되고 있다. 권덕원과 박주만(Kwon & Park, 2016)은 음악과 교과역량이 총론의 핵심역량을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음악교과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며, 김지혜(Kim, 2019)는 음악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과 음악 교과역량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민경훈(Min, 2020)은 총론의 핵심역량과 교과별 교과역량의 해석적 문제, 교과역량을 미반영한 내용체계, 교과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계성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이들 선행 연구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교육과정 문서가 역량기반 교육이 추구하는 개혁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 문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본래 역량은 직업교육에서 주목한 것이었으나, OECD가 2003년에 추진한 DeSeCo 프로젝트를 통해 그 개념이 직업교육의 영역을 넘어서 개인적 및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으로 확대되고 학교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후 세계 여러 나라는 앞다투어 OECD가 제안한 핵심역량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OECD는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OECD, 2019)를 통해 2030년에 성인이 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이라는 개념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라는 세 가지 상호연관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각각에 해당하는 하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들 요소들이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안내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소경희(So, 2020)는 역량교육을 전통적 관점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그것이 본래 의도한 잠재성과 혁신성이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역량이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므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지식’의 설계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고,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 모두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과역량을 좀 더 구체화함으로써 교과역량이 이끄는 학습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이므로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음악과 교과역량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언(Lee, 2011)은 역량교육에 있어 음악교과의 특수성이 반영된 역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연구는 음악과 교과역량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해 왔다. 예컨대 송주현(Song, 2015)은 외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검토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음악과 교과역량을 ‘수용’, ‘표현’, ‘성찰’로 제시하였다. 또한 박지현(Park, 2017)은 음악과 교과역량을 개인의 수용적 측면, 표현적 측면 그리고 사회화의 상호작용적 측면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음악과 교과역량이 궁극적으로는 삶 속에서 음악적으로 읽고 쓸 줄 아는 음악적 리터러시 역량 함양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음악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음악과 교과역량의 설정과 더불어, 역량을 반영한 내용 체계의 구조화 방식 또한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다. 송주현(Song, 2014; Song, 2015)은 해외 교육과정 사례 검토를 통해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의 중심축은 역량이 되어야 하며, 역량과 내용 지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연계되어야 하고, 성취기준은 역량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설계 원칙을 정리하였다. 또한 양종모(Yang, 2017)와 이경언(Lee, 2019a)은 내용체계 제시 방식에 있어서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는 것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양종모(Yang, 2017)는 음악과 교과역량의 기능을 명료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경언(Lee, 2019a)은 교과의 영역과 성취기준 자체를 음악과 교과역량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역량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음악 교육의 본질과 가치를 토대로 한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악과 교과역량의 구체화를 포함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체계 설계 방안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역량기반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의 설계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의 한 가지 방식으로, 해외의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사례 가운데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이하, BC주)의 교육과정이며, 이에 대한 여러 형태의 연구를 볼 수 있다(Kwon et al., 2018; Kwon, 2020; Kim & Choi, 2017; Kim, 2020; Ryu, 2020; Seo, 2019). 음악과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국제 비교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연구(Kwon et al., 2018)에서 캐나다 BC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캐나다 BC주 뿐 아니라, 최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여러 국가들의 음악과 교육과정과(일본, 핀란드, 프랑스, 호주 포함)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으로,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이 여러 나라의 비교 사례 중 하나로 제시됨에 따라 BC주 교육과정 설계 방식의 특징이 상세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또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해 수행된 연구로서 교과목의 구성, 교과 교육의 목적 및 교과목의 목표, 내용의 제시 방식, 내용의 범위와 수준, 교수학습, 평가의 6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국제 비교하였으므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설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접근을 취한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 개정 사례 가운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서, 캐나다의 다른 주뿐만 아니라 역량기반으로 설계된 다른 나라의 기존 교육과정 사례를 반영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 역량을 기반으로 설계된 캐나다 BC주와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내용체계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에 초점을 두고 면밀히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을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개선된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을 탐색해 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이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개혁의 메시지를 교육과정 문서상에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내용체계 설계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과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문서 혹은 자료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Analysis data

Nation	Data	Publication
Korea	•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curriculum •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British Columbia, Canada	• Curriculum-related materials uploaded on the BC's curriculum official website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본 연구에서 비교 사례로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처럼,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악과 교과역량의 성격이나 설정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은 2015년에 개정이 완료되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량기반으로 설계된 여러 해외 교육과정 중 비교적 최근의 것(Kim, 2020)이므로,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았다.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과는 ‘예술 교과(Art Education)’의 하나로 다루어지며, 예술 교과는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의 4가지 예술 분야를 포함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부터 8학년까지는 각 예술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적인 예술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9학년에서는 이와 더불어 4가지 예술 분야별 교육과정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교과 안에 음악 교과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음악 교과 교육과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9학년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교과역량이 예술 교과역량과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술 교과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악과 교과역량 및 내용체계의 구조에 있어서는 캐나다 BC주 예술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방식 및 특성에 대해서는 9학년 단계에서 별도로 제시된 음악과 교육과

정 문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설계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 사례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분석 준거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 설계된 우리나라와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설계 방식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석 준거는 음악과 교과역량 및 핵심역량과의 관계이다. 각 나라에서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설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둘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두 번째 분석 준거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이다. 각 나라 교육과정에서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및 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교과역량은 내용체계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분석해 보았다. 세 번째 분석 준거는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제시 방식이다. 내용체계의 구조 분석을 통해 각 나라의 내용체계 구성요소를 ‘핵심 아이디어’와 ‘기준’으로 분류한 뒤, 각각의 제시 방식을 범주, 위계, 진술 형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분석 준거를 중심으로 각 나라별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을 분석한 후 두 나라 간의 비교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Ⅲ.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설계 방식 비교

1. 음악과 교과역량 및 핵심역량과의 관계

우리나라와 캐나다 BC주 모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함에 있어서 총론의 핵심역량과 각 교과와 교과역량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두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은 무엇이며, 양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음악과 교과역량은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적 소통 역량’,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 교과역량은 음악과 교육과정의 ‘성격’ 항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교과역량이 핵심역량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 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교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교과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Lee, 2019a; Jeong et al., 2019), 다음과 같이 음악과의 교과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6가지 핵심역량을 1:1로 반영하여 음악 교과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 핵심역량

-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역량
-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역량
-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역량
-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량
-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

◎ 음악과 교과역량

- **음악적 감성 역량**: 음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특징 및 가치를 개방적 태도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깊이 있는 성찰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 **음악적 창의·융합 사고 역량:** 음악 분야의 전문 지식과 소양을 토대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자신이 학습하거나 경험한 음악 정보들을 다양한 현상에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 **음악적 소통 역량:** 소리, 음악적 상징, 신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의 음악적 표현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량
- **문화적 공동체 역량:**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량
- **음악 정보처리 역량:**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분류, 평가, 조작함으로써 정보와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 **자기관리 역량:**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

2) 캐나다 BC주의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은 모든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발달시켜야 하는 것으로서, 교육받은 시민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핵심역량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사고(Thinking)’, ‘개인적·사회적(Personal and Social)’ 역량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 학습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모든 학습을 위한 기초로 상호 연관되기도 한다. BC주 교육과정에 의하면 핵심역량의 발달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핵심역량을 학교 교육 이후에도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맥락 속에서 즉,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BC주에서는 핵심역량이 각 학습 영역에서 교과역량의 수행(Doing)에 참여할 때 발전된다고 밝힘으로써 교과역량을 통한 핵심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BC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은, ‘예술교육 소개(Introduction to Art Education)’라는 항목에 그 명칭과 예술 교과 내에서의 전반적인 의미가 소개되어 있다. 또한 교과역량은 교육과정 내용체계 내에서 각 학년 단계에 따라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다. 예술 교과역량은 예술 교육의 목표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핵심역량과 마찬가지로 교

육받은 시민으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술 교과역량은 학생의 예술적 사고방식으로 구조화되며, 학생이 음악 교과 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통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 교과역량으로는 ‘탐색하기와 창작하기(Exploring and Creating)’, ‘추론하기와 성찰하기(Reasoning and Reflecting)’, ‘의사소통하기와 기록하기(Communicating and Documenting)’, ‘연결하기와 확장하기(Connecting and Expanding)’가 제시되어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은 K-8학년 단계에서 일반적인 예술 교육과정으로 제시됨에 따라 음악과 교과역량은 예술 교과역량 속에서 확인된다. 또한 9학년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음악과 교과역량도 예술 교과역량과 동일하다. 즉, 캐나다 BC주는 음악과 교과역량이 예술 교과역량과 동일하게 제시된다. 캐나다 BC주의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심역량

• 의사소통(Communication)

-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지식, 기능, 절차, 성향을 포함
-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디어 및 정보를 획득, 발전, 변형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개성을 표현하며, 자신의 배움을 발전시키고, 목적을 달성함
- 만족, 목적, 기쁨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
- 하위역량: 의사소통하기(Communicating), 협력하기(Collaborating)

• 사고하기(Thinking)

- 지적 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지식, 기능, 절차를 포함
- 과목 특수적 개념과 내용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이해로 변형시키도록 함.
- 특정한 사고 기능 및 사고방식, 메타인지 의식을 포함
-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기 위해 무의식과 잠재의식, 내재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고와 감정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됨
- 하위역량: 창의적 사고하기(Creative Thinking), 비판적 · 반성적 사고하기(Critical and Reflective Thinking), 개인의 의식과 책임(Person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 개인적 · 사회적 (Personal and Social)

- 개인으로서 그리고 지역 사회 및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련의 능력
- 학생이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돌보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포함
- 하위역량: 긍정적인 개인적 · 문화적 정체성(Positive Personal and Cultural Identity), 사회적 의식과 책임(Soci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 음악과 교과역량

- 탐색하기 · 창작하기 (Exploring and creating)
 - 예술적 호기심 탐색하기 · 예술적 지적 능력 창조(창작)하기
- 추론하기 · 성찰하기 (Reasoning and reflecting)
 - 숙고와 가능성을 통해 추론하기 · 선택과 상상의 기회를 성찰하기
- 소통하기 · 기록하기 (Communicating and documenting)
 - 생각과 관점에 대해 소통하기 · 예술적 성장과 이해를 기록하기
- 연결하기 · 확장하기 (Connecting and expanding)
 - 자기 자신, 예술가, 예술 작품, 세상과 연결하기 · 인내를 통해 예술적 능력 확장하기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캐나다 BC주의 음악과 교과역량은 핵심역량과는 다른 명칭과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양자 간에 상호 연계된 내용을 표면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 모두 교육받은 시민으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 교과역량을 통한 핵심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각 교과역량이 핵심역량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미루어보아 교과역량이 핵심역량과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 점은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즉 ‘탐색하기와 창작하기’ 및 ‘추론하기와 성찰하기’는 ‘사고하기’라는 핵심역량과 연계되어 있고, ‘의사소통하기와 기록하기’는 ‘의사소통’이라는 핵심역량과 연계되어 있으며, ‘연결하기와 확장하기’는 ‘개인적 · 사회적’ 핵심역량과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3)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의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음악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분과되어 있어서 음악과 교과역량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BC주는 음악 교과가 예술 교과의 한 분야로 제시됨에 따라 음악과 교과역량과 예술과 교과역량이 동일하게 제시된다. 둘째, 우리나라와 BC주 모두 교과역량과 핵심역량을 별도로 제시하는 이원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이 상호 연계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과역량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즉 핵심역량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BC주의 음악과 교과역량은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즉 교과역량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역량과 상호 연계되는 방식을 취했다.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core competency’ and ‘music curricular competency’ in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BC, Canada

Curriculum	Core competency	Music curricular competency	Mutual connection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Aesthetic-emotional	Musical sensitivity	Curricular competencies reflecting the core competencies 1:1
	Creative thinking	Musical creative · convergent thinking	
	Communication	Musical communication	
	Civic	Cultural community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Music information processing	
	Self-management	Self- management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Communication	Communicating and documenting	Considering the purpose of core competencies in the process of materializing curricular competencies
	Thinking	Exploring and creating Reasoning and reflecting	
	Personal and Social	Connecting and expanding	

2.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체계를 구조화하는 일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를 분석하고, 앞 절에서 검토한 교과역량이 이러한 내용체계의 구조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본다.

1)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든 교과에 걸쳐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그리고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한 문장으로 진술한 성취기준으로 구성된 내용체계를 적용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교과의 세 가지 대영역, 즉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음악 교과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인 ‘핵심개념’과, 보편적인 지식인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요소’로는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음악의 필수 학습 내용을 제시하

1) 교육과정 문서에는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성취기준이 내용체계의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한 문장으로 진술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내용체계에 성취기준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고 있다. 다만, 감상 영역의 경우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 내용요소는 음악의 필수 학습내용과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은 음악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취기준’은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한 문장으로 진술한 것으로, 학생들이 음악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음악 수업 활동의 기준을 나타낸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영역:** 음악 교과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최상위의 교과 내용 범주
- **핵심개념:** 음악의 기초 개념이나 원리
- **일반화된 지식:** 각 영역에서 알아야 할 보편적인 지식
- **내용요소:** 학년(군)에서 배워야 할 음악의 필수 학습 내용. • ‘음악 요소와 개념체계표’
- **기능:** 음악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으로 음악 교과 고유의 탐구과정 및 사고 기능
- **성취 기준:** 학생들이 음악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을 결합하여 나타낸 수업 활동의 기준.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한 문장으로 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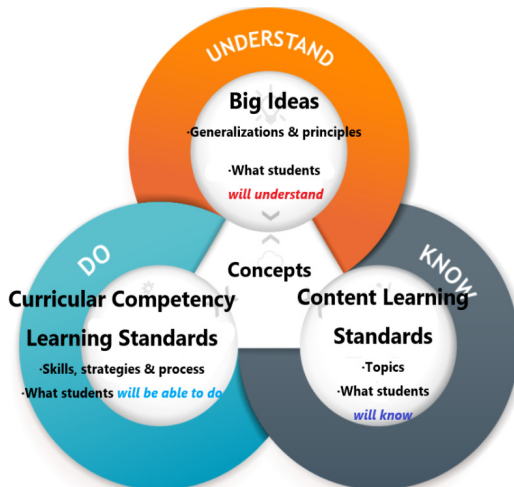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체계에 음악과 교과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성요소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기능’이 학습을 통해 해야 하는, 혹은 할 수 있어야 하는 수행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해당 교과 및 영역에서 추구(또는 기대)하는 교과역량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Lee & Jeung, 2017, p. 610). 즉 음악과 내용체계표에서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가 음악 교과의 내용지식과 관련된 요소라면, 기능은 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음악과 내용체계는 교과 내용지식인 내용요소를, 역량을 구체화한 요소인 기능보다 앞에 배치하고 있고 그 분량도 더 많아서 내용지식이 중심이 되는 설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2)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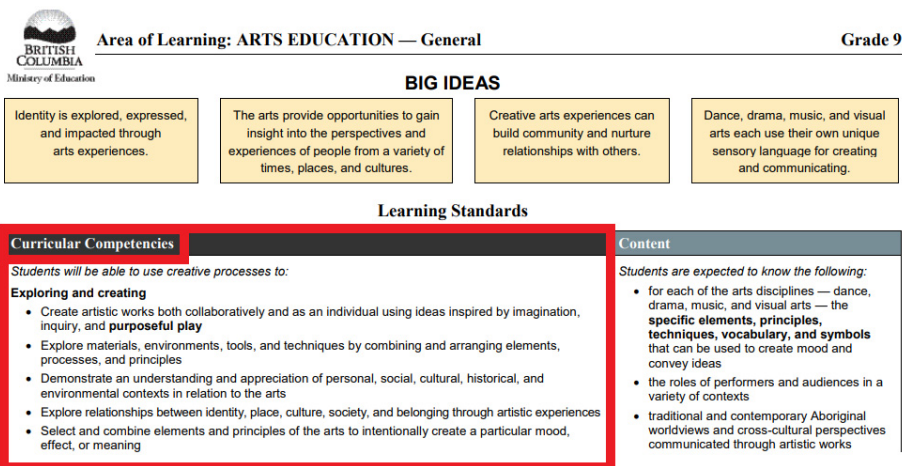
캐나다 BC주에서는 모든 교과에 걸쳐 “Know-Do-Understand”라 불리는 교육과정 모델을 적용하여 내용체계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음악과 교육과정도 이 모델을 따르

고 있다. 이 모델에서 ‘understand’는 학생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빅 아이디어(Big idea)’, ‘do’는 학생들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교과역량(Curricular competency)’, 그리고 ‘know’는 학생들이 알기를 기대하는 ‘내용(Content)’으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 모델에 따라 ‘빅 아이디어’를 상위에 놓고, 교과역량 및 내용에 대한 학습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BC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빅 아이디어’, ‘교과역량 학습기준’, ‘내용 학습기준’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1] 참조).

[Figure 1]에서 ‘빅 아이디어’는 일반화와 원리, 그리고 교과와 중요한 핵심개념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교육과정의 완성을 위해 이해해야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그 이해가 해당 학년을 넘어 미래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빅 아이디어는 음악 학습을 통해 탐색될 수 있으며, 예술적 사고방식들을 연결하는 정교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위 모델에서 ‘교과역량’이란 학생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달시켜야 하는 교과 고유의 기능, 전략,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역량 학습기준’은 각 교과와 학년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진술한 것이다. 또한 ‘내용 학습기준’은 각 교과와 특정 학년 단계에서 알아야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각 학년에 제시된 빅 아이디어의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주제와 지식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모델의 세 가지 구성요소는 개념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작동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깊은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조합하여 교실 수업 상황에서 적절한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한다.



[Figure 1] Curriculum model in BC, Canada²⁾



↑ Curricular Competencies

[Figure 2] The position of curricular competencies in the content system of music curriculum³⁾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과역량 자체가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그 학습기준이 학년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Figure 2]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내용체계의 구조에서 ‘교과역량 학습기준’은 ‘내용 학습기준’보다 앞에 위치하고 그 분량도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과역량이 전체 학습기준을 이끄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비교 분석 결과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그 구조 측면과, 내용체계에서 교과역량의 위치와 역할 측면에서 비교 분석될 수 있다. 먼저 내용체계의 구조 측면에서, 두 나라의 구성요소들을 그 역할과 내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병치시켜 비교해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나라 모두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는 크게 음악 교과에서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하는 ‘핵심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요소와, 학습이나 성취를 위한 ‘기준’을 나타내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과, BC주의 빅 아이디어는 그 성격상 전자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성취기준이나 BC주의 학습기준은 후자, 즉 기준 요소에 해당한다.

2) <https://curriculum.gov.bc.ca/curriculum/overview#curriculum-model>

3) https://curriculum.gov.bc.ca/sites/curriculum.gov.bc.ca/files/pdf/supports/curriculum_brochure.pdf

<Table 3> Comparison of content system structure of music curriculum in Korea and BC, Canada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Areas, key concepts, generalized knowledge		Big ideas	
Achievement standards	Skills	Curricular competencies	Learning standards
	Contents	Contents	

한편,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서 교과역량의 위치와 역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과역량과 내용체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반면, BC주에서는 교과역량이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체계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내용지식이 중심이 되는 반면, BC주는 교과역량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3.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제시 방식

앞에서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크게 ‘핵심 아이디어’와 ‘기준’을 나타내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석되었다. 이 절에서는 두 나라의 내용체계에서 이들 구성요소 각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우리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제시 방식

(1) ‘핵심 아이디어’의 제시 방식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에서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영역’은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학년군별 구분 없이 모든 단계에 같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음악과 ‘핵심개념’으로는 음악 교과 학습과 관련된 지식(소리의 상호작용,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기능(음악의 표현 방법), 태도(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음악과의 ‘일반화된 지식’은 영역별 핵심개념이 음악 교과 내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현 영역

- **핵심개념:**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 **일반화된 지식:**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 감상 영역

- **핵심개념:**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 **일반화된 지식:** 다양한 음악을 듣고 음악 요소와 개념, 음악의 종류와 배경을 파악하여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한다.

◎ 생활화 영역

- **핵심개념:** 음악의 활용, 음악을 즐기는 태도
- **일반화된 지식:** 음악을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음악이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갖는다.

한편, 음악과의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진술 방식을 보면, 위의 제시된 내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핵심개념’은 ‘~방법’, ‘~태도’, ‘~개념’과 같이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진술되어 있다. 또한 ‘일반화된 지식’은 핵심개념과 기능을 연결하여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일반화된 지식’은 ‘기능’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기준처럼 보이기도 한다.

(2) ‘기준’의 제시 방식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는 ‘내용요소’, ‘기능’, ‘성취기준’이며, 영역별로 구분되어 제시된다(<Table 4> 참조). ‘내용요소’는 음악의 내용지식을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 등의 항목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며, 내용요소의 학년군별 위계의 제시 방식은 영역별로 다르다. 감상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학년군별 위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컨대 감상 영역의 내용요소 중 ‘~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은 별도의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통해 학년군별로 배워야 할 필수적인 음악 내용 지식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차례가기와 뛰어가기→장음계·단음계→여러 가지 음계’, ‘시김새→여러 가지 시김새’와 같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배워야 할 음악 요소 및 개념의 종류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 영역의 경우에는, 음악의 구성, 자세와 연주법을 모든 학년에 같은 내용요소로 제시함으로써 학년군에 따른 위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능’은 수행을 나타내는 ‘~하기’의 형태로 제시되며, 영역별로만 제시하고 있어서 학년군에 따른

<Table 4> Contents and skills of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in Korea

Areas	Contents			Skills
	Elementary school		Secondary school	
	Grades 3-4	Grades 5-6	Grades 7-9	
Expression	Musical composition	Musical composition	Musical composition	• Singing • Playing an instrument • Expressing with body movements • Composing • Expressing
	Posture and method for playing music	Posture and method for playing music	Posture and method for playing music	
Appreciation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for Grades 3-4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for Grades 5-6	Musical elements and concepts for Grades 7-9	• Identifying • Expressing • Explaining
	• Pitch • Conjunct motion and disjunct motion • Sigimsae⁴⁾ ...	• Pitch name, syllable name, Yulmyeong⁵⁾ • Major scale, minor scale • Sigimsae ...	• Various scales • Tori⁶⁾ of different regions • Various Sigimsae ...	
	Music expressing situations or stories	Music from different culture	Types of performance music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music	
Music in daily life	Music and events	Music and events	Music and events	• Participating • Evaluating • Researching
	Music and play	Music and health	Music and industry	
	Korean traditional music in life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ultural heritage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world	

위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성취기준’은 <Table 4>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한 문장으로 제시되며, 주로 ‘~을 한다’는 식의 학습의 결과로서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진술된다. 예를 들어 감상 영역의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라는 성취기준은, 내용요소인 ‘중학교 1·3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과, 기능 요소인 ‘구별하기, 표현하기’를 결합하여 진술한 것이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주로 학습이 끝난 후, 그 결과로서 수행의 기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4) Musical ornaments in Korean traditional music

5) Pitch name in Korean traditional music

6) Modes of Korean folk song

태도 및 가치와 관련된 ‘생활화’ 영역의 경우에도 ‘음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거나 ‘세계 속의 국악의 위상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식의 성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태도 및 가치의 형성 과정보다는 학습을 통한 수행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취기준은 주로 학생 개인의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컨대 작품의 완성에 있어 협력이 필요한 음악 활동인 음악극의 경우에도, ‘주제에 맞는 음악극을 만들어 표현한다’와 같은 개인의 수행을 기준으로 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2) 캐나다 BC주의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제시 방식

(1) ‘핵심 아이디어’의 제시 방식

캐나다 BC주 교육과정은 각 교과와 핵심 아이디어를 ‘빅 아이디어’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음악과의 빅 아이디어는 음악의 본질과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삶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탐구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과 관련된다. 빅 아이디어는 교과역량과 내용, 즉 학습기준을 뒷받침해주는 단단한 뿌리와 같은 것으로, 음악 교과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해야 할 것’(교과역량)과 ‘알아야 할 것’(내용)으로 구성된 학습기준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음악과 빅 아이디어는 4가지이며, 이를 구분 짓는 별도의 용어나 대영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Table 5> 참조).

<Table 5> Big Ideas of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Music 9

Identity is explored, expressed, and impacted through music experiences.	Music provides opportunities to gain insight into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people from a variety of times, places, and cultures.	Collaborative music experiences can build community and nurture relationships with others.	Music uses a unique sensory language for creating and communicating.
--	---	--	--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4가지 빅 아이디어는 각 학년 단계와 수준에 따라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심화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예술을 통한 소통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빅 아이디어의 경우, <Table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 아이디어 공유→예술을 통한 자신과 타인의 경험 연결→예술적 경험을 통해 타인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공감 능력 발전→ 음악을 통해 다양한 시대, 장소,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에 대한 통찰’로 제시됨으로써 예술과 삶을 둘러싼 맥락과 관계의 범위와 깊이가 심화 및 확장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빅 아이디어는 해당 학년(군)에서 이해해야 할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원리를 한 문장

으로 진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Table 6> Expanding the scope and depth of the big ideas presented on the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K-1	3	6	9 Music
People connect to others and share ideas through the arts.	The arts connect our experiences to the experiences of others.	Experiencing art is a means to develop empathy for others'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Music provides opportunities to gain insight into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of people from a variety of times, places, and cultures.

(2) '기준'의 제시 방식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학습기준'과 '내용 학습기준'은 이 둘을 연결하는 상위의 영역이 없이 제시된다. 교과역량 학습기준은 '탐색하기와 창작하기', '추론하기와 성찰하기', '의사소통하기와 기록하기', '연결하기와 확장하기'의 4 가지 역량별로 제시되고 있으며, 내용 학습기준은 별도의 구분 없이 제시되고 있다.

교과역량 학습기준과 내용 학습기준은 모두 학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내용의 깊이와 범위가 심화·확장되어 발전하는 형태로 제시된다. 예컨대 '탐색하기와 창작하기' 교과역량 학습기준의 경우, <Tabl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K단계부터 탐색했던 예술의 요소, 과정, 재료, 움직임, 기술, 도구, 기법을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할지 그 상황과 맥락을 심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Table 7> The example of hierarchy of curricular competency learning standards presented on the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Exploring and creating' curricular competency learning standards	
K	Explore elements,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and techniques of the arts
3	Choose elements,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techniques, and environments of the arts
4	Choose artistic elements,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techniques and environments using combinations and selections for specific purposes in art making
5	Intentionally select artistic elements,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techniques, and environments to express meaning in their work
6	Intentionally select, apply, combine, and arrange artistic elements, processes,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tools, techniques, and environments in art making
7	Intentionally select and apply materials, movements, technologies, environments, tools, and techniques by combining and arranging artistic elements, processes, and principles in art making
9 Music	Select and combine musical elements and techniques to interpret an idea or define style, creating a particular mood or effect

교과역량을 진술하는 용어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높은 수준의 행동으로 진술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깊이와 범위를 심화 및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내용 학습기준 또한 같은 요소와 내용일지라도 학년 단계에 따라 내용의 깊이가 심화되고 범위가 확장된다. <Table 8>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술의 요소와 관련하여 학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내용지식을 알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알아야 하는 음악 요소의 양도 K단계 5개, 1학년 6개, 2-4학년 9개, 5학년부서는 10개 정도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많아진다.

<Table 8> The Example of hierarchy of content learning standards presented on the music curriculum in BC, Canada

Content learning standards	
K	Elements in the ar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rhythm, tempo, pitch, dynamics
1	Elements in the ar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rhythm, tempo, pitch, dynamics, form
2-3	Elements in the ar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duration , rhythm, tempo, pitch, timbre , dynamics, form, texture
4	Elements and principles that together create meaning in the art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duration, rhythm, tempo, pitch, timbre, dynamics, form, texture
5	Elements and principles that together create meaning in the ar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metre , duration, rhythm, tempo, pitch, timbre, dynamics, form, texture
6	Purposeful application of elements and principles to create meaning in the art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metre, duration, rhythm, tempo, pitch, timbre, dynamics, form, texture
7	Manipulation of elements and principles to create meaning in the art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metre, duration, rhythm, tempo, pitch, timbre, dynamics, form, texture, notation
8	Manipulation of elements, principles, and design strategies to create mood and convey ideas in the arts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beat/pulse, metre, duration, rhythm, tempo, pitch, timbre, dynamics, form, texture, notation

한편,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 학습기준은 ‘~한다’ 식으로 학생들이 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구체적인 문장 형태로 진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탐색하기와 창작하기’ 역량의 9학년 학습기준인 ‘아이디어를 해석하거나, 양식을 정의하고, 특정 분위기나 효과를 창작하기 위해 음악적 요소들과 기법들을 선택하고 조합한다’를 살펴보면, 수행의 맥락과 목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추론하기와 성

찰하기' 역량의 9학년 학습기준인 '음악적 기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디어, 절차, 기술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정련하고, 기록하고, 비판적으로 살펴본다'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학습기준에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진술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내용 학습기준은 학생들이 알기를 기대하는 내용지식을 몇 가지 요소 정도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과역량 학습기준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제시된다. 특히 내용 학습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요소에 대해서도 문서에 제시된 것에 제한되지 말라는 단서를 제시함으로써 교사가 교실 수업 상황에서 제시된 학습기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C주 교육과정에서 특히 9학년에 별도로 편성된 음악과의 학습기준은 다음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학습의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창의적 과정(Creative processes)을 사용하여 교과역량 학습기준을 수행하도록 제시하는 것과 '학습 향상을 위해 음악적 경험을 수정, 정련, 분석, 기록한다'와 같은 교과역량 학습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⁷⁾ '독주나 앙상블을 통해 협력하여 연주한다'거나 '독립적 · 협력적 음악 학습을 통해 과정을 창조하는 데 기여한다'와 같은 교과역량 학습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태도 및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내용 학습기준에 제시된 '음악의 창작하기, 공연하기, 반응하기와 관련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이나 '문화적 사용과 표현의 윤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과역량 학습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그들 자신, 타인, 청중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도 이에 해당한다. 넷째, 음악가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실제적인 맥락과의 관련을 강조하고 있다. 교과역량 학습기준에 제시된 '작곡과 연주를 통해 음악가들이 기법, 기술,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해석하고, 고려한다'와 같은 기준이 이에 해당한다.

3) 비교 분석 결과

두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제시방식을 핵심 아이디어와 기준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핵심 아이디어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이 핵심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이들은 음악과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핵심 아이디어는 음악 교과의 지식, 기능, 태도와

7) '예술교육 소개(Introduction to Art Education)'에서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첫째, 유연한 교수 학습(예술 통합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선택 과목), 둘째, 평생 학습, 셋째, 원주민 학습 원리, 넷째,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된 내용을 소재나 주제 위주로 간결하게 담고 있다. 반면 BC주에서는 ‘빅 아이디어’라는 이름의 핵심 아이디어가 별도의 상위 영역 없이 제시된다. 빅 아이디어에는 음악의 본질과 깊이에 대한 이해, 음악과 삶,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소통 및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학년 단계에 구분없이 동일하게 제시되나, BC주에서는 각 학년 단계에 따라 심화 확장하여 제시된다.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개념은 명사형으로 간결하게 진술되고, 일반화된 지식은 명제적 지식으로 진술된다. BC주의 빅 아이디어의 경우는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일반화된 지식에 가까운 형태를 띤다.

다음으로 기준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준은 내용요소, 기능, 그리고 이 양자를 결합한 성취기준의 형태로 제시되며, 이들은 음악과의 영역별로 제시된다. BC주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능에 해당하는 교과역량과, 내용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학습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자를 결합한 성취기준 형식의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준이 일부 영역에서만 내용요소 중심으로 학년군에 따른 위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BC주에서는 교과역량 학습기준과 내용 학습기준 모두에서 학년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깊이와 범위를 심화·확장시켜 제시하고 있다. 기준의 진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내용요소는 음악의 내용지식에 해당하는 요소를 명사 형태로 열거하고 있고, 기능은 수행을 나타내는 동사를 나열하고 있으며, 성취기준은 이들 양자를 결합한 문장으로 진술되어 있다. BC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교과역량의 학습기준을 문장으로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 학습기준은 이보다 간단하게 내용요소 정도를 나열하고 있다. 기준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성취기준이 학습의 결과나 개인의 수행에 초점을 둔 반면, BC주의 학습기준은 학습의 과정 및 절차와 협력적인 학습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태도와 가치의 형성 과정이나 삶의 실제적인 맥락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역량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 우리나라와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설계 방식을 핵심역량과 음악과 교과역량의 관계, 내용체계 구조, 내용체계 제시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교과 본질에 기반한 음악과 교과역량 설정과 함께,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역량은 개별 교과의 지식과 기능의 지속적인 고양을 통해서만 발달될 수 있으므로 교과 특수적 역량들이 핵심역량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 있다(So, 2015, p. 208). 캐나다 BC주 교육과정도 핵심역량이 각 학습 영역에서 교과역량의 수행에 참여할 때 발전된다고 밝힘으로써 교과역량을 통한 핵심역량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교과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1:1로 교과역량에 재해석하여 설정함으로써 음악 교과의 본질적 특성과 고유한 가치를 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이경언(Lee, 2019a) 역시 핵심역량을 교과의 상황에 맞게 변형한 수준의 교과역량으로는 음악 교과의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음악과 교과역량이 음악 교과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음악과 교과역량이 총론의 핵심역량을 수동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는 음악교육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BC주의 경우 음악을 포함한 예술 교육의 본질과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는 교과역량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과역량이 중심이 되어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역량기반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음악 교과 내부에서의 충분한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음악 교과의 본질과 특수성에 기반한 교과역량이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핵심역량과의 연계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교과역량 중심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의 핵심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중심의 내용체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여전히 내용지식 위주의 전통적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음악과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이러한 내용체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음악과의 핵심개념으로 제시된 ‘음악의 종류’, ‘음악의 배경’, ‘음악을 즐기는 태도’ 등은 음악의 핵심개념이라기보다 주제나 소재에 가까우며, 음악과 교과역량은 내용체계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중심축은 교과의 내용지식이 아닌 교과역량이 될 필요가 있다. 캐나다 BC주는 교과역량이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교과역량에 대한 학습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내용지식 위주의 핵심개념 중심이 아닌, 음악과 고유의 교과역량을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역량을 내용체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내용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표현, 감상, 생활화라는 3개의 영역별로 제시되어 있어서 영역별로 제시된 내용이 각 영역에만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감상’ 영역의 핵심 개념인 ‘음악 요소와 개념’의 경우, 이는 음악의 모든 영역의 학습에서 기초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상 영역에서만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성취기준은 내용체계표의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하여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특정 내용요소가 실제 수업에서 여러 방식의 활동이나 기능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취기준에 제시된 특정 기능으로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 암시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캐나다 BC주의 경우는, 교과역량 학습기준과 내용 학습기준이 별도의 영역 구분없이 제시되어 있으며, 내용 학습기준은 간소하게 제시하되 제시된 내용요소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내용요소와 기능을 결합한 우리나라 성취기준 형태의 기준이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교사들이 교과역량과 내용 요소를 자율적으로 연계하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음악 교수학습 상황에서는 한 수업 내에서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이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수준에서 영역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과, 내용요소와 특징의 기능을 연결시키는 형태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각 학년 단계에 따라 내용체계의 각 구성요소의 위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음악과 삶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캐나다 BC주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성요소는 각 학년에 따른 위계가 상세히 제시되며, 음악과 삶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확장하여 발전시키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음악과 교육과정은 내용체계의 일부 영역과 내용요소에서만 위계가 제시된다. 위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음악 학습과 관련된 주제나 내용을 다르게 한다거나 음악적 요소나 개념의 종류의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과역량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기능의 경우는, 교과역량의 위계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BC주와 달리, 학년군별 구분 없이 모든 단계에 동일하게 제시된다. 송주현(Song, 2015, p. 124)은 음악교육에서 역량을 “인간 내적 자질들을 총체적으로 가동하여 다양한 음악적 맥락과 상황에 적응하고 음악을 의미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음악 교과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표현함으로써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음악과 내용체계는 음악적 수행 능력의 신장 뿐 아니라 음악을 통한 삶의 의미

발견 및 세상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음악과 삶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 속에서 내용의 깊이와 범위를 심화 및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체계의 각 구성요소별로 학년 단계에 맞는 위계를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결과로 드러나는 수행 뿐 아니라 학습의 과정적, 절차적 측면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기능’을 내용체계에 새롭게 포함하고 있지만, ‘기능’ 요소가 학습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인 역량을 단지 효과적인 수행으로만 이해하여 그 의미를 기능과 동일한 것으로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So, 2020). 또한 ‘생활화’ 영역의 경우, 태도 및 가치 형성의 과정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행 위주의 기능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학습의 결과에 초점을 두게 한다. 캐나다 BC주의 경우에는, 음악과 교과역량 학습기준을 통해 ‘창의적 과정(Creative processes)’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의 과정적 절차적 측면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반영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한 교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Kwon et al., 2018)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수업 활동 과정과 사고 능력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음악 교과 수업의 활동 과정과 그 결과로서의 사고 능력을 성취기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하기(Doing)’ 능력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 즉 ‘되기(Becoming)’와도 관련된 것이다(So, 2020). 따라서 음악을 깊이 경험하고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학습의 결과로서의 수행을 나타내는 진술뿐만 아니라 음악적 수행의 과정을 나타내는 진술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성패 여부는 결국 교사의 실행에 달려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역량교육에 대한 메시지의 명료성과 적절성 여부는 이러한 교사의 실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역량기반 교육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역량교육으로의 개혁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음악과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음악 교육 본질에 기반한 교과역량의 설정 및 설계를 통해 음악교육자들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

- Bae, J. G., Park, S. Y., Kim, J. Y., Kim, H. S., Do, J. H., Park, Y. G., Cho, J. H., & Ra, J. J. (2019). *A study o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subject curriculum (II): Monitoring and its results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RRC 2019-4-1)*.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B. C. Ministry of Education. (2020). Canada BC's curriculum. Retrieved February 17, 2021, from <https://curriculum.gov.bc.ca>
- Bergqvist, E., & Bergqvist, T. (2017). The role of the formal written curriculum in standards-based refor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49(2), 149-168.
- Choi, S. J. (2018). Practice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Cases at the high school level.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6(1), 169-196.
- Choi, S. J., Lee, J. D., Kim, E. Y., Kim, H. J., Paik, N. J., Kim, J. M., & Park, J. H. (2017). *A study on OECD education 2030 project: Analyzing validity of OECD competencies framework and exploring practices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in South Korea (RR2017-18)*.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Chung, H. S. (2016). Critical review of the key concept-centered content system of the 2015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with a focus o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4(3), 29-50.
- Jeong, Y. K., Min, Y. S., & Lee, J. Y. (2019). A study on understanding of key competency curriculum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8), 211-237.
- Kim, J. H. (2019). Analysis of subject competencies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1), 33-51.
- Kim, R. Y., & Choi, J. Y. (2017). An analysis of recent curriculum reform for developing core competencies in Finland and Canad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8), 161-189.
- Kim, S. M. (2020). A comparative of the secondary education mathematics curriculum in Korea and Canada BC (British Columbia).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and Instruction*, 24(1), 57-71.

- Kwon, D. W., & Park, J. M. (2016). A study on educational method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based on the competency. *Journal of the Korean Music and Education*, 42, 7-33.
- Kwon, J. R. (2020). International comparison of ways in which competencies is reflected in mathematics curriculum: Focused on France, Australia and British Columbia in Canada.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34(2), 135-160.
- Kwon, J. R., Lee, K. E., Min, Y. S., Kim, H., Kim, K. C., & Kim, H. J. (2018).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curriculum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Focused on Korean language, social studies, mathematics, physical education, and music subject(RRC 2018-10)*.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E. (2011). Direction of discussions on the key competence in developing the music curriculum.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3, 1-15.
- _____ (2019a).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presentation methods of competences in the music curriculum - With a focus on South Korea, France, Finland, and Australi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2), 61-84.
- Lee, K. W., Beak, K. S., & Lee, S. J. (2017). Key competencies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relationship with the idea of the educated person, educational goals, and subject competencie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5(2), 67-94.
- Lee, K. W., & Jeung, Y. K. (2017). A reflective review on constitution of content system in 2015 revised subject curriculum: Focused on key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and skil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6), 597-622.
- Lee, S. E. (2019b). Desig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in South Korea: Challenges and limitations found in the development of subject-specific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7(3), 287-316.
- Lim, Y. N., & Hong, H. J. (2016). A study on the presentation form of education content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subject curricula: Focused on Content framework. *Asian Journal of Education*, 17(3), 277-302.
- Lim, Y. N., Jang, S. Y., & Hong, H. J. (2017). An analysis of curriculum leading teachers' opinions on competencie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its implication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3(1), 5-33.
- Min, K. H. (2020). Analyzing the problem of 2015 revision music curriculum based

- on competencies and discuss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new music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43-161.
- Ministry of Education. (2015a). *Overview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 2015-80.
- _____ (2015b). *music curriculum*. No. 2015-74.
- _____ (2015c). *2015 Revised curriculum general introduction english version development study*.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OECD. (2019). Concept note: Knowledge for 2030.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A series of concept notes* (pp. 71-82). Paris: OECD.
- Park, J. H. (2017). An exploration on the key competency for enhancing musical literacy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4), 723-731.
- _____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encies presented in OECD education 2030 and 2015 revised music curriculum: Focusing on the degree of reflection of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4), 161-180.
- Park, J., So, K. H., Chang, Y. W., & Hu, Y. J. (2019). Rethinking competence-based education from a post-modern perspective: Based on the deleuzian ontology.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7(2), 1-25.
- Ryu, J. Y. (2020). A study on the designing and using of 'big ideas' in the national art curriculum: Focused on the analysis of visual arts curriculum in BC, Canada. *Journal of Art Education*, 62, 123-154.
- Seo, Y. J. (2019). Exploring ways to utilize 'big ideas' in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 Based on an analysis of BC's English language arts curriculum in Canada.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54(1), 71-105.
- So, K. H. (2015). Issues in the general guideline draft for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Remaining tasks for subject matter curriculum develop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1), 195-214.
- _____ (2020). The direction of school education for the future society: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curriculum to foster future-oriented competencies.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mall-scale Policy Seminar 2nd Document*, 3-18.
- So, K. H., Choi, Y., & Park, J. (2020).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eachers' sense-making process in the practice of educational refor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8(4), 131-155.

Song, J. H. (2014). *A study on competency-based music curriculum design pla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_____ (2015). A Study on the music subject competency in the school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117-146.

Yang, J. M. (2017).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re competence and musical competence: Korea, Japan,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USA.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77-103.